



# 海外市場情報

## 크로즈엮된 농산물무역

제상을 뒤흔들었던 통화위기가 앞서 파리에서 열린 14개국 재무장관 회의로 일단 수습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다시금 세계통상정책 즉 미국, EC(구 주공동체) 등의 농산물무역문제가 크게 클로уз—업 되었다.

이미 정부와 민간전문기관의 차원에서 각종 연구와 보고서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척되고 있으나 금년 9월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신국제라운드교섭을 바라보며 농산품무역의 방향이 시끄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으로의 농산물무역의 방향으로서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며 미국정부의 농업경제고문인 제루 존슨씨는 론돈 무역정책센터에서 위촉되어 행한 보고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각국이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급격한 정책변경을 필요로 하지않고 장기적으로 보다 농업지지의 제정책을 케도 수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다음의 두가지가 국제교섭에서 토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 하나는 농업지원을 위한 제정책이 의도하고 있는 주요목표와 배경 더욱 나아가서 가격문제를 내외에서 제통적으로 써서 내 보이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농산품역람의 확대에 있어 경제적인 견지에서 바람직한 방법과 모순된것 같은 농업보호정책과 체제 무역제한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기본적인 강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교수가 이와같은 제창을 하게된 것은 지금까지 국제농산품무역교섭이 관세라는 특정의 무역장애에만 한정되어 논의 되었고 그 국내에의 적용은 각국의 제량에 맡겨 왔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서 동 교수는 이번의 신국제라운

드교섭에서는 「보호관세의 레트」에 집중하여 논의하는 한편 농업보호제 정책에 따른 생산, 소비효과를 충분히 보아넘기면서 농산품무역의 보호조치를 경감시키고 그러한 “과대보호” 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정부의 책임추궁에 많은 시간을 걸리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존슨교수는 그와같은 협의의 성과로해서 「가령 선진제국이 그러한 보호조치를 평균수준으로 25%정도까지는 완화했다고 한다면 세계의 농산품무역은 획기적인 확대를 보일것이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가장 엄하게 추궁 당하고 있는 것은 농업보호정책을 우선하는 각국의 자세이며 각국정부는 더욱 넓은 시야에 서서 전망을 구하고 있는 소치이다.

그러한 전망을 가진 정책하에서만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도 가능하며 수입과세, 수출조성금이라하는 정책도 효과적으로 관리된 형태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EC 제국은 지역외에 대해서 보호색이 강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존슨 교수는 곡물과 식품, 낙농제품의 수입관세는 많은 경우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니고 몇몇은 확실히 제한완화된 것도 있다고 지적, 반드시 EC제국을 싸늘하게 보고 있지 않은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런데 EC에서는 존슨 교수의 분석과는 달리 공통농업정책의 진도는 엄격 하다고 보는 편이 단언지배적이다.

더욱 EC 농업정책에서는 UC(구주제산단위)의 가격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변경은 즉시 자국통화에 의한 식품가격의 변경으로 되돌아감을 영국뿐이 아니라 강한 통화와 약한 통화의 나라사이에서의 의혹이 야기될 것을 피할수 없는만큼 지역내에서 명확한 방향을 결정하거나 가격상승의 신장을 설정하는 논의는 「마라톤 회

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지역밖에 대한 대책을 짜내고 올 가을 신 국제라운드에서 임할 EC에 있어서는 이번 통화위기는 구주에서도 환영되지 않을 수 없는 파문을 던져주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또 한 EC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세우면서 EC의 앞길을 점쳐나갈 것인가 하는점에서 주시되는 바이며 제네바 회의까지 그의 행방을 둘러싸고 시끄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22년이래 최고기록

### 미국의 식료품값 크게올라

계속 인플레이 재연위험을 받고 있는 미국에서 식료품가격이 대폭인상 되어 소비자들은 비명을 울리고 있다.

미 노동성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중에 0.5% 상승했는데 이는 72년 12월의 0.2%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같은 물가지수상승은 거의가 식료품 가격의 양등때문이다. 그동안 식료품은 월간 2.1%나 상승했는데 이것은 1951년이후 22년만에 최고기록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가정에서 구입하는 식료품의 평균상승율은 72년 1월부터 73년 1월까지 1년동안에 7.6%인데 계란이나 베이컨같은 것은 약 30%나 40%까지 올랐다.

또 도매물가로 지난 2월의 경우 1.9%로서 22년만에 처음있는 기록을 보였다. 도매물가의 상승요인도 식료품이 양등되었기 때문인데 관계 전문가들은 금년 1년간 식료품가격의 상승율은 22년래 최대의 것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 뱅글라데시 식량부족

### ~부족량은 100만톤이상~

뱅글라데시는 3월 독립이래 식량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주택부족, 인플레이, 실업, 사회불안, 테파키스탄 관계의 정상화, 인도를 위시해서 미국, 소련과의 등거리정책 등 내외외환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옆나라인 인도의 예를 들것까지 없이 식량위기가 국내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뱅글라데시는 지난해에도 연간 약 250만톤의

식량이 부족되어 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인도와같이 아사자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독립직후라는 특수성으로 각국에서 총액 11억불에 달하는 원조를 받기도 했다.

식량수입량으로 환산하면 인도가 최고인 80만톤, 미국이 55만톤, 캐나다 30만톤, 일본 6만톤등이다.

그러나 올해엔 제 나라에 많은 아사자를 낼것으로 예상되는 인도가 작년처럼 원조를 준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적 배려가 이룩되더라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보다 원조액이 크게줄어들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뱅글라데시 정부당국은 73년의 식량부족량은 약 1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7~11월의 곡물생산기에 일기가 불순하면 부족량은 150만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뱅글라데시의 식량수급추계에 따르면 73년도의 소요량을 약 1,200만톤으로 보고 있다.

이 숫자는 성인 1일당 약 15온스(약420그램)로 인구를 7,500만명으로 계산한 량인 것이다. 한편 72년도의 국내 곡물 생산량은 약 970만톤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역년과 회계년도(7~다음해 6월)의 차를 감안하면 약 230만톤 정도 부족 현상을 보이는 셈이다.

그러나 뱅글라데시정부는 올해도 80만톤 정도의 식량만 수입하고 나머지 부족량은 원조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는 UN이 세계각국에 뱅글라데시원조를 계속 호소하고 있고 지난해 세계각국에 요청하였던 70만톤 규모의 식량이 도입중에 있으며 앞서 왈트하임 사무국장이 73년말까지는 100만톤을 원조하겠다고 밝힌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각국이 식량원조문제에 대해서 다소 쓴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해서 약 40만톤이 보내져 왔을 뿐이다.

뱅글라데시는 EC각국에서의 원조도 기대하고 있다.

EC전체에서 50만톤 정도의 공급력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18만톤 정도의 원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EC내에서의 예측이다.